



2008 세계 LPG포럼

대한LPG협회

세계LPG협회 주관으로 매년 “세계LPG포럼”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LPG협회와 대한LPG협회 공동주관으로 9.22(월)~26(금)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LPG포럼은 오토가스, LPG연료 및 관련 제품기기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 및 부대전시 등을 통해 업계관련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1. 에너지시장 동향

가.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초래

- 산유국 등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로 에너지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부담 작용
- 향후 고유가 전망이 예상되어 각국은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신개념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대비되는 큰 변화 예고

나. LPG의 위기

- 외부적으로 유럽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추세 지속, 국제가격이 지난 5년간 매년 23.5% 인상
- 내부적으로 '90년도 중반 이후 천연가스 보급 확대에 의한 LPG 시장 잠식, 정부의 경유 우선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원간 경쟁력 취약
- LPG업계는 2005년 2차 에너지세계개편으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정부는 전반적인 에너지가격·세제 조정을 위한 3차 에너지 세계개편을 시행할 계획, 향후 LPG업계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 *강력한 압력집단인 정유사 및 화물운송업계의 영향력으로 경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 상존
 - *최소한 현재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비율 및 유류세의 유지를 위하여 LPG업계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된 모습과 강력한 집단으로 정부·국회·지자체 등에 인식 필요
- 가장 큰 수요 집단인 택시업계, 장애인의 극단적 반발과 수요이탈 조짐 : CNG/경유택시 등 타연료 전환 모색

2. 세계 LPG 포럼이란?

산유국을 포함해 LPG업계를 대표하는 전세계 90여개국 175개 LPG 회원사 모임인 세계LPG협회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LPG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매년 주최하는 업계 최대행사로, 전세계 LPG업계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

- 에너지원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LPG의 친환경성을 부각하여 세계 정책결정자들에게 LPG 이미지 개선
- 수송용·가정용·산업용·농업용 등 다양한 사용 부문별로 LPG의 환경적, 경제적 우월성을 제시하여 정책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가 상호 공유하고 미래 발전전략 마련
- 에너지원간 가격, 수요개발 및 R&D 경쟁에 대한 LPG업계의 대응방안 모색
-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정책상에서 발생하는 각 국가별 문제점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도출

3. 포럼 개최 필요성

에너지 위기 시대, LPG업계 생존방향 모색

가. LPG업계 위기상황 가속화

- 천연가스의 사업 영역 확대 : 가정상업용 → 수송용
*수송용 시장이 무너질 경우 LPG업계의 성장 가능성 희박
- 국제 도입가격 급격 상승으로 인한 LPG 가격 지속 상승
- LPG 소비량 정체 : LNG 시장잠식 및 가격경쟁력 상실로 프로판 소비자 외면은 물론, 택시 등 주 소비집단 이탈 조짐
→ 위기상황 타계를 위한 역량 집중과 전환점 필요

나. LPG업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적극적 표명 기회 마련

- 국내 에너지·세계·환경 분야 전문가와 해외 LPG업계의 측면 지원을 통해 LPG 업계 주장의 정당성과 명분 확보
- 정부·국회·자동차사 등 주요 계층에 대한 직접적 설득
- 행사 참석 정·관계 인사에게 LPG업계의 입장과 요구 사항 직접적 전달

다. LPG 에너지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LPG의 중요성 인식 제고
- LPG의 청정성에 대한 일반 대중 인지도 확대

4. 세계 LPG 포럼 기대 효과

가. LPG업계 우호세력 확보

-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우호 세력으로 확보하여 3차 에너지세계개편 등 정책 추진시 사업 환경을 LPG업계에 유리하게 조성
- 정부·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LPG의 우수성 홍보하여 이미지 개선

나. LPG 차량 개발 및 생산 촉진 : 국내 제작사에 차량 개발 동기 부여

- 포드, 르노 등 주요 제작사의 LPG차량 개발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 유도
- LPG차량의 세계적 확대 보급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 인지도

다. 산유국(아람코社)과 국내 LPG가격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유

- LP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현재 정부 정책 및 세제지원을 통해 LPG 가격 경쟁력 유지
- 정부의 세계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라. 한국 LPG산업 발전 성과 대내외 홍보

- LPG 차량 보유대수 1위, 최첨단 LPG 엔진기술 상용화 등 LPG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대내외 과시하여, LPG산업의 위상을 확실히 제고
- LPG산업이 에너지산업 중 마이너 영역이 아니라 한국이 지속 발전시켜야할 주요 산업임을 각인

5. 성공적 개최를 위한 LPG업계 행동 방향

- 가. 모든 LPG업계의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합된 노력이 필요함

- 나. 정부 및 유관기관에 LPG업계의 위상을 강조하고, 업계의 입장을 공동으로 관철하여 업계 모두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함
- 다. LPG가 소비자의 복지증진, 에너지 수급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에 전 업계가 동조하고 지지해야 함.

세계 LPG포럼 충전업계 참여 현황

구분	2006년 미국 시카고	2007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2008년 한국 서울
개최국 참가자	248명	106명	250명 (예상)
충전업계 참가자	67명	32명	75명
충전업계 참가율	27%	30%	30%

6. 세계 LPG 포럼에 대한 국가적 지원 현황

가. 정부 부문

구분	내역	비고
지식경제부	○ 장관 개막식 기조 연설 ○ 에너지자원실 인사 초청	9월 24일
환경부	○ 장관 만찬행사 연설 ○ 환경전략실 인사 초청	9월 25일
서울시	○ 서울시장 환영사 ○ 포럼 개최지원금 후원	9월 24일

나. 기관·민간 부문

구분	내역
세제정책기관	○ 재정학회 : 학회장 주제발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광규 박사 주제발표 ○ 한국가스안전공사 : 포럼 스폰서 및 주제발표
자동차사 연구기관 학계	○ 현대기아자동차 - 이현순 사장 기조연설 - 포럼 스폰서 및 차량 전시 ○ 한국기계연구원 : 주제발표 및 차량 전시 참여 ○ 자동차공학회 : 주제발표 ○ 자동차엔진제작사(타타대우자동차) : 차량 전시 ○ 자동차부품업체(모토닉·EnD) - 주제발표 및 전시 참여
LPG 업계	○ LPG 개조업체 : 주제발표 및 차량 전시 ○ 용기 밸브업체 : 전시 참여 ○ S/B업체 : 전시 참여
언론사	○ 6개 언론사 미디어파트너 참여 및 홍보 지원